

26.06.14.주일설교[37주차 쉬라흐 레카-너를 위해 보내라 민 13:1~15:41]

제목: 너를 위해 보내라(쉬라흐 레카) /성구: 민 13:26~14:10

이번주 토라포션 성경읽기, 37주차입니다. 토라의 서른일곱 번째 말 씀은, 민수기 13장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민13:2) 여기.. “보내라” 는 의미의 명령형 동사 쉬라흐 נָשַׁל 입니다. 쉬라흐 레카..(너를 위해 보내라)

그동안 성막을 중심으로..행진하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에 진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세에게 먼저 약속의 땅을 살펴보도록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7절 이하에서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남방 길로 행 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을 탐지하라. 그곳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은 좋은지 안 좋은지, 천막에 사는지 견고 한 성에 사는지, 땅은 기름진지, 그리고 과일도 가지고 오라” 고 명하 였습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7절을 보면, 과연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서, 가져온 과실을 보여 주었습니다. 과연 좋구나..

그런데 갑자기 28절에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부정적인 열명의 정탐 꾀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 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못 들어간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12명의 정탐꾼들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누구입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 (지휘관), ‘나씨’ ” 들이었습니다. 히브리어 ‘나씨’ 는 왕자, 우두머 리, 대장이라는 뜻으로,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고, 왕의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비전

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각 지파의 수령된 자를 통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라는 것을, 정탐하게 해서..하나님께서 직접 눈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이, ‘나씨’, 지도자들인 만큼 그들의 이름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우아요.” 삼우아는 ‘알려진 명성’이라는 뜻입니다.

주욱 보시면..사밧은(재판과 다스림), 갈렙(충성스러움,개), 이갈(그가 속량하리라), 호세아(구원), 발디(나의 구출), 갓디엘(하나님은 나의 행운), 갓디(나의 행운), 암미엘(하나님의 백성), 스둘(숨겨진), 나비(비밀스럽게 감춰진), 15절 그우엘(하나님의 높으심)..까지..

16절에는 특별히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정탐꾼으로 파송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진 이름처럼..가장 으뜸이요. 머리가 되는 수령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 사도라고 하고,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만을 이행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하라고 지시하신 그 일을 해내면, 사도의 역할을 충분히 해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따라 배우고, 제자된 자로서 12명의 ‘나씨’ 처럼..정탐꾼으로 파송이 된 것입니다..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기 위해 하나님 보내주신 그 땅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일을 해내면 그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한 충성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말씀은..이스라엘 역사구나..그렇게 지나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에는..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길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삶의 길에서 어려움과 두려움을 만납니다. 그럴 때,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같은 상황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절망을 보고, 어떤 이는 기회를 봅니다. 같은 문제를 만나는데 어떤 이는 원망과 불평으로 무너지고, 어떤 이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에 기회를 보고 도전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거의...가나안 땅 문턱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결국 그 세대는 광야에서 40년을 떠돌게 되었고, 오직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하나님께서는 경계선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전진하라. 가데스바네아의 경계선을 넘어가라!” 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경계선상에서 우물쭈물하다가 그만 뒤로 돌아가고 방향을 계속하는 실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 저는 오늘 전해드리는 설교중에..우리 모두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오염되고, 교회도, 교인들도..물질과 망몬의 신 앞에 오염되어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비디오 영상에 올린.요셉술람 장로님의, “현실이 믿음을 오염시키게 두지 말라” 제목이..가슴에 확 와닿지 않아요? 우리가 처한 현실이..믿음을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가 백성들을 겁먹게 하고, 실망과 좌절 속으로 오염시킨 것입니다. >>>

여러분의 믿음이 부정적인 믿음으로..오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에서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짓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살라흐 레카’ “너를 위해 정탐꾼을 보내라...” 원문에는 “너를 위해” 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정탐꾼’을 나씨..라고했지요. 현대 히브리어로는 나씨는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즉 나씨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한 민족, 나라, 족속을 대표하는 왕의 권위를 가진 존재입니다.

앞서 정탐꾼 12명의 이름에 담겨진 뜻이 있듯이..저와 여러분은 하나

님께서..특별히 불러 택하신 백성으로 각각 이름을 걸 듯이..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믿고 천국간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만이 아니라..우리는..수령으로 선별된 사람.. ‘나씨’입니다.
아무나 고른 것이 아니고, 책임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특별히..이 점을 느낄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12정탐꾼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라는 것을, 정탐하게 해서..하나님께서 직접 눈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땅밟기를 하듯이요..우리에게..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조금 괴롭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오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좀 가난하고, 몸도 아프고, 이리저리 근심되는 일이 있더라도..정탐해야할 땅 밟기 하듯이..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 천로역정의 영화를 보면, 순례자가 십자가 앞에 무거운 짐을 벗은 뒤..하늘에서 “빛나는 새 존재”로부터 받은 두루마리속의 약속의 열쇠를 찾는 장면이 기억나시나요..한평생 등에 맨 무거운 짐이 벗겨지듯이..벗어지고 천국의 열쇠를 받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천국이 예비된 성도들은 지금 잠깐 쓰러져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1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12정탐꾼을 파송 할 때에 이들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었습니다.(민14:20)
첫째로 땅의 거민들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성이 산위에 담이 있는 성인지, 없는 성

인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고 오라고 명했습니다.

둘째로 그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 지, 나무가 있는 지 없는지를 살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땅의 농산물을 탐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인데,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을 한번 가지고 와보라고 명했습니다.

자..이렇게 12정탐꾼들이 40일 동안 탐지한 후에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나무에 꺾어서 메고 왔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메고 왔는데, 에스골이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포도송이’라는 뜻으로, 포도송이가 워낙 커서 동네 이름을 ‘포도송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틀림없이 축복의 땅이요, 풍요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12명 모두가 눈으로 보고 귀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가..28절에 계속됩니다.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뭐라는 겁니까? “아.. “좋은데, 그러나..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12명의 중 열 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백성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에는 거인 같은 아낙 자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았습니다.”

이 보고를 듣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밤새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이제 다시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우린 못 갑니다. 안 됩니다.”라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문제의 크기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 앞에서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차라리 옛날이 더 나았지 않습니까?” 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장애가 있어도, 불가능해보여도, 그것을 뚫고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가데스바네아..라는 말이 나오면, ‘에~쿠 정신 차리자!!! 하셔야합니다.

<<<여름날에 계곡에...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 보셨습니까? 산란을 위해 자신들이 태어난 계곡으로 돌아가기 위해 모인 열목어들, 60 센티미터가 넘는 물고기가 가파른 계곡 물 위를 힘껏 뛰어 오릅니다. 바위에 부딪치고, 거친 물살에 실패해도 2 미터가 넘는 계곡물에 오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은 고기야..동동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장애물이 있고, 실패해도 끝까지 올라갑니다. 자연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살아있는 물고기에서 배워야 합니다.

(A. 비전 성취의 장애물)

민수기 13장과 14장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장애물을 알고, 대처해 나가면, 반드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보겠습니다.

(1)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장애물) 첫째는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합니다. 사람의 태도가 부정적이면 “못하리라. 안되리라. 어려우리라” 는 말이 쉽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강해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왕이신가라는 문제를 결정할 때, 창세기 12장이후로, 아브라함을 통해, 제사장국가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후로..이스라엘은..스스로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긴 것이지, 하나

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들의 힘이 강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실지로 힘이 강하다면, 오히려..가인의 후예들이 더 힘이 세고, 능력 있고, 강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이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국가,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된 백성은..내가..내가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도무지 저 가인의 후예 세력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

12명의 정탐꾼들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하나님 없이 그 약속을 저버리고..인간적 관점으로 결정하고, 상황을 보는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현실을 지나치게 과장합니다. 32-3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고 기록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있었을까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과장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신장이 장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거인들이 몇 명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장해서 모든 백성이 다 거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은 이처럼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망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는 자기 비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있지도 않은 사실까지 사실인양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과장이요, 자기 비하요, 한마디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믿는 자의 태도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2)(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두 번째,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그 땅 백성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에는 거인 같은 아낙 자손도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았다..” 두려움이 가득한 보고입니다. 이 보고를 듣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하였다 2.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3.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밤새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이제 다시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겁먹은 반응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우린 못 갑니다. 안 됩니다.”라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현실에서 믿음이 오염이 된 겁니다. 오염되었다면, 빨리 조처를 해야지요.

방역하거나..바이러스를 잡아야 합니다. 오염이 된 채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여러분..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문제의 크기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 앞에서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차라리 옛날이 더 나았지 않습니까?” 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결국은..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이지요. 참으로 불신앙적인 슬픔입니다. 이들은 울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죽을까봐, 우리 처자가 죽을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가 내가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할까? 내가 이러다가 병들면 어떡할까? 이러다가 우리자식들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생길수 있을 지라도..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문제를 과장하지 말고, 오염된 믿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력이 생깁니다. <<<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가진 마음입니다. 거대한 골리앗같은 문제가..떡허니,,앞에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사랑이 일어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무엇이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은 바로 셀프 컨트롤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겸손히 감사함으로 자신을 컨트롤하면, 자신이 아주 형편없는 상태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보다..그렇게 나쁘지 안구나”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는 것입니다.

잊지 말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3)(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세 번째 장애물은 반항정신입니다. 때때로 이들이 가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모들에게 반항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은 가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결정적인 악행입니다.

오염된 믿음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내는지..14장 4절 말씀을 보시

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라고 말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자..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

여러분..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은 마귀가..주는 것입니다. 결국 악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없이 살아요..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믿음의 생활을 저 버리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가자..애굽이 어디입니까?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오늘 본문 **14장 1,2,3절**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밤새도록 통곡하는 저들의 모습에서..무엇을 느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다가..장애물에 부딪히면..다들 주저앉고, 부르짖고 통곡하다가 애굽으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많아졌습니다.

오늘날..주변 사람들보세요.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과연..현실이 믿음을 오염시키 않았는지요.. “ 주일 지키고, 헌금, 봉사해도..소용 없네..!! ” “예수 믿어도 되는 일 없네..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런 신앙은..정말 끔찍합니다. 굉장..아시지요..1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에 마음이나, 온 중심이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B. 믿음으로 고백한 갈렙과 여호수아 (14:6-9)

그러나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섭니다. 옷을 찢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성을 보았고, 똑같은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열 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고 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믿음이 오염되지 않고 건강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상황보다 ‘약속’을 붙들습니다. 두려움보다 하 ‘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거대한 문제,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가능하다, 주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YES ~~아멘..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세상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밥입니다. 밥은 먹는 것이지,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한번 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왜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자신 있게 사십시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우리의 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밥 잘~ 잡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어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도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 결정합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내일을 여는 열쇠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 18:18)할렐루야

이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 저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